



SOGANG ECONOMICS

NEWSLETTER

SPRING 2020

(041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 발행인: 곽노선 | 편집인: 정국모 | 편집진: 김성관(총괄), 전덕희(행정팀), 김민석 | <http://econ.sogang.ac.kr>

FOCUS NEWS

곽노선 경제학부 신임 학장 인사말



〈곽노선 신임 학장〉

코로나 바이러스19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학장에 취임하게 되어, 한편으로는 비상시에서의 학사 운영의 원활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서강 경제의 위상 제고라는 책임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2월 졸업식,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1학기 강의는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학기 후반부터는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킨다는 전제 아래 일부 수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대면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도 서강 경제 가족들은 묵묵히 학업, 교육, 연구에 매진하고 있지만, 처음 서강 가족의 일원이 되는 신입생들은 물론 재학생들도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선후배, 동료 및 교수님들과 교류를 못하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수습되어 생동감 있고 낭만과 학문탐구가 함께 넘쳐 흐르는 캠퍼스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학의 학사운영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및 교수들 모두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법에 익숙해지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이 무엇인지 돌아켜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온라인 강의와 대면 강의를 병행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대면을 통한 회의, 미팅, 컨퍼런스, 커뮤니케이션이 실제 생활에 더욱 활발히 침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 및 생활방식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향후 혁신을 이끌어갈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게 되었으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도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인재양성을 하는 대학교육의 측면에서 지향해야 할 미래의 인재는 과거의 윤리적, 철학적, 인성적 측면에서의 성숙한 인간

의 완성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혁신에 적응하고 선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강 경제 교육에 있어서도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의 개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경제학부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전통적 경제학의 보편 원리 교육을 통한 경제적인 마인드의 확립을 기초로 다져놓고, 새로운 컴퓨터 관련 기술을 이용, 응용하여 데이터를 다루며,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빅데이터 금융관련 과목 및 계량분석 과목들을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강 경제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과제는 토론 및 발표 수업을 확대하여 미래에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팀 중심의 과제 수행에 알맞은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학자는 미래의 고용형태는 모든 사람들이 프리랜서처럼 흩어져 있다가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별로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시 흩어지는 매우 유연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강좌당 수강생수가 토론 및 발표에 맞게 줄어들기 위해서는 교수 인력의 확충을 전제로 다양한 과목의 개발 및 강좌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재 대학의 재정상황은 이러한 이상적인 교육을 허용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 교육 및 연구 기관은 교육 뿐만 아니라 연구 중심의 학풍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교육의 강화 및 교수 연구 역량의 강화는 필수적인 요건이며 연구 성과의 평가에 있어서도 양적인 평가에서 질적인 평가로 변화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서강 경제는 연구 중심의 질적인 평가시스템 및 리쿠르팅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학계에서도 선도적인 학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들이 상존해 있지만 주어진 제약조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경제원리처럼 최고의 교육과 연구 성과를 이루기 위해 서강 경제 모든 구성원들은 지난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강 경제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모든 서강 가족들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격려와 애정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더욱 업그레이드된 서강 경제가 되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세대 서강학파’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별세



〈이승윤 부총리〉

1세대 ‘서강학파’로 개발 경제를 이끌었던 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3월 13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부총리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경제학 박사)를 졸업했다. 서울대 상과대 부교수

를 거쳐 1964년부터 서강대 경상대학 교수로 일했다. 1976년 제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제10대, 제13대,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이기도 하다.

그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끈 ‘서강학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고인은 먼저 작고한 남덕우 전 총리, 김만제 전 부총리와 함께 ‘서강학파 트로이카’로 불렸다. 재무부장관(1980년~82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90~91년)으로 경제 정책을 이끌었다. 특히 석유 파동과 대홍작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1980년 재무부 장관을 맡아 해외 차관 도입·확대를 주도해 위기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다. 해외건설협회장과 금호그룹 고문 등을 지내며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도왔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정은모씨와 아들 이준수 중국 형사이신 에너지그룹연구원장, 딸 이진수·이연수씨, 사위 김시현 변호사, 전경훈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 사장 등이 있다.

조무상 박사·남주하 교수, 한국주택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조무상 박사 (왼쪽)〉



〈남주하 교수〉

서강대학교 조무상 박사와 남주하 교수가 한국주택학회 발행 학술지 『주택연구』 27권 1호에 게재된 ‘주택가격의 폭발적 거품의 추정’ 논문으로 2019년도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주택학회는 주택에 관한 이론 및 정책분야를 연구하고, 주택관련 현안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학문적, 정책적 정보 제공과 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1991년 11월 설립 되었다. 본 학회는 주택문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교수, 연구원, 실무자,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과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된 활동은 전문학술지 『주택연구』의 발행과 학술발표대회가 있다.

조무상 박사는 고려대학교(세종) 경제학과 졸업 후 본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강대 혁신과경제연구센터 전임연구원, 한국산업경제학회 이사, 그리고 한국지방재정정책학회 이사로 역임하고 있다.

남주하 교수는 본교 경제학과 졸업 후 듀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2019 서강경제대상’에 문명순 감사·정재식 교수 선정



〈문명순 감사〉



〈정재식 교수〉

서강대 경제대학원과 경제대학원 총동문회는 ‘2019 서강경제대상’ 사회경제인부문 수상자로 문명순 교육시설재

난공제회 감사(더불어민주당 고양갑 위원장), 학술부문 수상자로 정재식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서강경제대상은 매년 국가경제에 기여한 사회 경제인과 자유시장 경제학 연구에 업적이 뛰어난 교수를 선정해 시상한다.

문명순 감사는 30여년 금융계에서 몸 담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국민은행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금융 공약과 정책 실현에 큰 역할을 했다. 현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상임감사로 교육시설의 재난 및 연구실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 등 재난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다.

정 교수는 본교 경제학과 졸업 후 듀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연구위원을 역임한바 있다.

안태현 교수, 'OLC학술상' 첫 수상



〈안태현 교수 (왼쪽)〉

우리 대학 경제대학원 부원장 인 안태현(46) 경제학과 교수가 서강대 경제대학원 오피니언 리더스클럽(OLC)이 올해 처음 제정한 'OLC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OLC 측은 지난 5일 서강대 계폐

르트 남덕우 경제관 홍성열 강의실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안태현 서강대 경제대학원 부원장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시상식은 어진 OLC 회장이 직접 맡았다.

OLC학술상은 국내외적으로 학술과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교수를 선정,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도 지원된다. 안 교수는 최근 적정한 실업급여 책정과 구직촉진 수단 설계 및 효과성을 분석한 '구직활동에 재취업 인센티브가 주는 효과 평가'라는 논문을 발표해 학술적이면서도 정책적으로 시의성 있는 연구라는 평가를 받았다. OLC는 서강대 경제대학원 오피니언리더스 프로그램(OLP)을 이수한 중견 언론인, 기업체 홍보담당 임직원, 중소기업 CEO 모임이다.

안 교수는 본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서강대 양현주 교수, 2019년 한국경제학술상 수상자 선정



〈양현주 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양현주 교수가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2019년 한국경제학술상 거시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 교수 논문의 제목은 'Family clans and public goods: Evidence from the New Village Beautification Project in South

Korea'로 2019년 1월 개발경제학의 최고 권위지인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에 게재된 바 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술상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해외 및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경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수상 논문 수는 거시분야, 미시분야 총 2편이다. 최근 2년간 서울대, Cornell University, 경희대 등 우수 대학의 연구진이 수상했다. 한국경제학회는 1952년 설립돼 회원이 5,000명에 달하는 경제학계 대표 학회이며, 58개 경제 관련 학회를 이끄는 모 학회다.

양 교수는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를 졸업 후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유슬기 학생, 2019 Asia-Pacific Industrial Organization Conference 참석



〈유슬기 박사과정생〉

유슬기 박사과정생(지도교수 전성훈)이 2019 Asia-Pacific Industrial Organization Conference(APIOC)에 참석하여 "The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Korea Movie Industry: Efficiency vs. Exclusion"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APIOC는 2019년 12월 13일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서강경제 가족을 찾아서: 이철순(82학번) 에프엔가이드 대표



〈 이철순(82학번) 에프엔가이드 대표 〉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강경제 가족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1년 6개월전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와이즈에프엔과 에프엔가이드가 합병을 하여 현재는 에프엔가이드의 각자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합병 이후 물적, 인적 통합작업에 전념하고 있었고 이제는 합병법인 에프엔가이드가 안정화 단계를 지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AI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프엔가이드는 한국의 블룸버그를 지향하는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프엔가이드는 한국 최고의 자본시장 정보 제공업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블룸버그가 그 역할을 한다면 한국에는 에프엔가이드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올해가 설립 20년이 되는 해이고요 관계 회사로 에프엔자산평가와 웰스가이드가 있으며 인원은 에프엔가이드가 140명이고 관계회사까지 합하면 임직원이 250명입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연기금 및 은행/보험회사의 투자파트 등 900여개 회사가 저희 고객사입니다. 서비스분야로는 금융 데이터, 솔루션, 컨텐츠 제공 및 펀드평가, 채권평가 등이 있습니다.

에프엔가이드의 대표로 취임하신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일과 보람차고 기뻐던 경험들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합병법인으로는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고 합병 전 와이즈에프엔까지 합하면 16년을 금융 정보업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차고 기뻐던 일은 조그마한 중소기업으로 시작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 취임 당시 30여명이 안 되는 임직원으로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임직원들과 푹푹 뭉쳐 회사가 성장을 지속해 온 것이지요. 물론 2018년 합병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한국경제가 갖추고 있는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보시지요?

한국경제의 장점을 들자면 지금까지는 양질의 인적자원이 이끄는 역동성이었습니다. 2000년 이전 까지 이러한 역동성이 고도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또한 그 이후 20년 동안에도 IT 등 첨단 분야 산업에서 성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역동성이 최근 몇 년 전부터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 회사 그리고 정부 모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고 노후를 축적해 나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에 치중한다는 점이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장애물이라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점들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토대로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타 선진국들과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도태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에프엔가이드에서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의 방향 혹은 경영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에프엔가이드는 'B2B' 기반의 회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B2C'와 '글로벌정보'를 공급하는 회사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는 '플랫폼경제'의 시대입니다. 또한 국내투자자들은 이제 해외투자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선도하지 못하면 결국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영방침은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첨단기술이 발전하여도 금융정보회사의 핵심은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데이터입니다. 또한 투자의 기본도 펀더멘탈

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는 이러한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궁극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동문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경제학을 전공으로 선택하셨던 동기나 계기는 무엇인가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굳이 이야기 하면 친구들과 관계가 좋은 학생이었다는 정도라 할까요? 처음에 경제학부에 입학한 것은 사업을 하셨던 선친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마치고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과 30대 후반에 회사를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은 전적으로 경제학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대우경제연구소와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면서 경제학 지식이 모자라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그럴수록 경제학에 더욱 흥미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동문님의 인생습관이 있으신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전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2005년에 이업에 뛰어들던 것도 그 전 다니던 증권회사가 합병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나서입니다. 그 때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도 가지 않으려 했던 길을 저는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제가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를 주도할 학생들이 리더로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우스갯소리로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빠르게 변하는 미래사회에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리더만이 살아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젊은이들은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식을 함양할 뿐 아니라 실패 하더라도 현실에 부딪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하자면, 이제 혼자서만 똑똑해서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의 역량을 발휘해 낼 수 있는 소통을 잘하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은 학생들이 은행 및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제학이나 경영학 등 관련 학업에 충실한 것이 가장 기본이겠지요. 여기에 저는 ‘경제신문 읽기’를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제신문을 읽는 학생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 더 이야기 하자면 금융 전문가의 가장 큰 덕목은 지식이 아니라 윤리의식입니다. 학생입장에서 아직 와 닿지 않는 이야기 일지 몰라도 ‘남의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그리고 ‘물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금융 전문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 이철순(82학번) 에프앤가이드 대표 〉

신임교원 인터뷰: 양현주 교수



(양현주 교수)

경제학부의 새로운 교수님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교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소개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경제학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에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복지부 부연구위원,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조교수를 거쳐 이번 봄부터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여러분과 만나 뵈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 제 목표는 “몸 건강히 졸업만 할 수 있었으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부인 서강대 경제학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사실 아직도 꿈인지 현실인지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강대 그리고 서강대 학생들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떠하십니까?

이미 서강대 임용 전에도 여러 경제학 학술대회와 학회에서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님들과 다양한 학술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경제학부의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은지는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에 경제학원론1, 학부 개발경제학을 가르치면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쉽게도 교실에서 만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메일로 보내오는 여러 질문을 미루어 보면 단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이 많았어요. 이를 통해 서강대 학생들의 강점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학부의 대학원생분들도 조금씩 연구 관련 교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공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학원생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기대됩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의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연구 분야는 개발경제학입니다. 주로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여 지역의 개발 및 발전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 박사 논문에서는 1910년대 한국의 도로 네트워크와 1950년대 한국전쟁 지도, 1970

년대를 마을 공공재 정보를 활용하여 마을 사람들 간의 이념적 대립이 이후 마을의 공공재 생산을 저해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위성영상과 행정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여러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서강대 경제학부 동료 교수님들, 학부 및 대학원생 여러분들과 함께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한국 관련 좋은 실증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에 관한 연구 수요가 많지만, 아직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인 한국경제 실증 연구의 공급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도 많이 발굴하고, 지역단위 행정구역 변화 추적 등 한국 연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도 병행하려 합니다. 체계적인 한국경제 연구를 중요시하는 서강경제의 학풍과도 일맥상통하는 계획이 아닐까요? 관심이 있는 학생 여러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님께서 맡으신 강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전 이번 학기에 경제학원론1과 개발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원론1의 경우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많은 학생이 처음 경제학을 접하게 되는 과목인 만큼 원론에서 배운 개념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근의 시사 토픽을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경제학은 경제개발의 여러 이론을 토픽별로 소개합니다. 토픽은 빈곤, 불평등, 인적자본, 농촌 개발, 도시와 도시 이주, 환경, 분쟁 등이고요, 이론과 함께 다양한 개발경제 실증 연구들도 같이 소개합니다. 실증 연구 논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실증 연구 방법론도 1~2주 정도 다루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연구한 논문들도 같이 소개해서 개발경제학 연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서는 학창시절 어떤 학생이셨는지요?

저는 학부 전공 분야가 국제통상 분야였는데, 다들 그렇겠지만 대학생으로 과연 내가 선택한 전공이 제 적성에 맞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 경험을 쌓으려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은 생각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가서는 국제화물회사에서 9개월간 인턴을 했고요, 휴학하고 중국에 가서 1년 정도 살아보기

도 하였습니다. 대학원 가서도 여름방학에 인도에서 3개월간 인턴도 해 보았습니다. 대학을 들어가면서 꿈꾼 국제통상 분야 현장을 뛰는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것은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개발경제학 연구를 하는데도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께서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경제학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교환학생 시절에 리포트를 쓴다고 Alabama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Alabama에는 유독 현대, 혼다, BMW 등 해외 자동차 회사 공장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Alabama였을까? Alabama에 가서 주 정부의 담당 공무원도 인터뷰하고 현재 자동차회사와 자동차 부품회사 임원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지방 정부가 어떻게 하면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열심히 보고서를 썼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강의하시던 교수님 한 분이 네팔 출신이셨는데, 보고서 내용을 꽤나게 봐주셨는지 Nepal Study Center라는 웹사이트에 제 리포트를 research note로 게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 계기로 새로운 사실을 직접 밝혀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학문의 폭이 가장 넓은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시경제학의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계량경제학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적인 부분도 있어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이슈로 현재는 제약이 있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주위의

많은 사람과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도 좋고, 취업을 한 선배도 좋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할 때 확실히 책이나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해 얻을 수 없는 정보와 insight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부에는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 교수님들도 많이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세요. 저도 진로 고민할 때, 석사, 박사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더 늦기 전에 고마운 스승님들께 연락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네요.

교육자로서의 목표 혹은 교수님만의 교육철학이 궁금합니다.

저는 경제학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적용하여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독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수업이든 최근의 경제 및 사회 관련 토픽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파생된 여러 경제학적 이슈가 있습니다. 제 경제학원론1 강의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을 예로 삼아 마스크라는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은지 대해 학생들에게 (비대면 퀴즈로)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개발경제학에서는 COVID-19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도에 끼칠 영향에 대해 다루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서강대 경제학부 학생들에게 대학생활 4년 동안 이것만은 꼭 경험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책 하나 추천해 드려도 될까요? Oliver Sacks가 쓴 Seeing Voices 입니다.



이인실 교수 퇴임사



〈이인실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통에 익숙해졌을 법도 한데 뉴스레터에 실을 퇴임사를 부탁받고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만났으면 헤어지는 것이 만사의 이치이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외에 딱히 할 이야기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6년 9월 서강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교수 임용을 지원한 모든 대학에서 거절의 답을 들으면서 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갖 만들어진 은행의 경제연구소(하나경제연구소)였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남자 동기들에 비하면 아주 소박한 출발이어서 마음에 불만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를 거쳐 통계청, 그리고 서강대에 이르기까지 다섯 개의 각기 다른 직장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 행운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익을 중시하는 민간 연구소, 반관반민의 협회 연구소,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통계청,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경제학을 연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강에 머문 기간이 가장 오랜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년을 1년 반 정도 남기고 퇴직을 결심한 것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 동기입니다.

경제원론을 가르칠 때 시장에는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는 것을 설명하곤 합니다. 세상 사는데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나 봅니다. 혼자서 해나가기에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때마다 위기를 잘 넘겨온 것은 저를 대신해 걸음을 부축해준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강에서의 제 삶이 특히 그러했습니다. 서강을 사랑하는 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최고의회전문가 과정(TCSP)이나 의회전문가 과정(CSP) 오피니언 리더스 과정(OLP)을 제대로 해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성 최초로 통계청장과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도 서강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대학에 여성 경제학 교수가 정말로 희귀한 시절인데도 저를 서강대 경제학부에서 최초로 여성교수로 임용을 선택하신 당시 남성일 학장님과 선후배교수님들의 결단에 정말 감

사의 말씀드립니다. 경험이 많으신 선후배 교수님들의 지도와 슬기롭고 바른 학생들로 부터의 배움은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음을 고백합니다. 서강이 있었기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연구 분야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차선의 기회를 선택했지만 결국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학교에 들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없는 교정은 텅 비고 고요했습니다. 교문에 들어설 때마다 곳곳에서 들렸던 웃음소리와 20대 초반 특유의 생기발랄함으로 활기와 활력이 넘쳤던 교정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알록달록한 꽃과 싱그러운 초록 잎들이 여전히 교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자신의 의미와 십년 넘게 몸담았던 대학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싸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내친 김에 작별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교수님들과 학생들 서강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마도 교정에서 가끔 뵈 일이 있겠지만 퇴임은 서강대에 처음 출근했을 때처럼 새로운 출발이라 설렙니다. 다른 위치에서 서강대 경제학부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일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서강 경제인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동정

● 이인실 교수 퇴임

이인실 교수가 2019년 2학기 강의를 끝으로 정년퇴임을 맞는다. 이인실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1989년 미국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1992년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장, 1999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조세연구실장, 2000년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2002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금융발전심의회 정책분과위원회 위원, 2003년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2004년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본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써 왔다. 또한 2006년에 한국경제학회 이사, 2009년에는 12대 통계청장, 그리고 2019년에는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 광노선 교수, 한국계량경제학회 발행 학술지 편집위원장 선임



〈광노선 교수〉

광노선 교수가 한국계량경제학회 발행 Scopus 학술지인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국계량경제학회는 1986년에 창립된 전국규모의 학회로서 경제학 교수들과 공·사립 연구기관,

기업체 및 정부의 경제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정회원으로 하여 현재 약 55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 한국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이다. 또한 광노선 교수는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사, 한국경제학회 이사로 선임되어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다.

● JB금융지주, 정재식 서강대 교수 사외이사 선임



〈정재식 교수〉

JB금융지주 신임 사외이사에 정재식 서강대 교수,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위원, 박종일 법무법인 태환 대표변호사가 선임되었다. JB금융그룹은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을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JB캐피탈 미얀마(Capital Myanmar)를 손자회사로 둔 종합금융

그룹이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선임



〈김영철 교수〉

김영철 교수가 제5기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각 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교육청의 사교육 대

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건설적 제안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각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서울시의회 등에서 추천된 15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 기초과학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선임



〈양현주 교수〉

양현주 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 수리및계산과학연구단 데이터사이언스그룹의 초빙 연구위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게 되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국가주도로 설립된 종합 연구기관으로 물리학, 화학, 수학, 생명

과학, 지구과학, 융합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 경제학부 교수 1년간(2019. 1. 1 ~ 현재)

주요 연구업적

- 우수국제학술지 등재논문

Geromichalos, Athanasios, and **Jung, Kuk Mo**. (2019.12). Monetary policy and efficiency in over-the-counter financial trad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52 (3), 1699-1754.

Kim, Young-Chul, and Glenn C. Loury. (2019.6). To be, or not to be: Stereotypes, identity choice and group inequa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74, 36-52.

Yang, Hyunjoo. (2019.1). Family clans and public goods:

교수동정

Evidence from the New Village Beautification Project in South Kore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36, 34-50.

- 국제학술지(SSCI) 등재논문

Ahn, Taehyun, and Choi, Kyong Duk. (2019.6). Grandparent caregiving and cognitive functioning among older people: evidence from Korea.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17(2), 553-586.

Choi, In. (2019.5). Unit Root Tests for Dependent Micropanel. *The Japanese Economic Review*, 70(2), 145-167.

Choi, In, and Jeong, Hanbat. (2019.6). Model selection for factor analysis: Some new criteria and performance comparisons. *Econometric Reviews*, 38(6), 577-596.

Choi, Jungjun, and **Choi, In**. (2019.8).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autoregressive models with a near unit root and Cauchy errors. *Annals of the Institute of Statistical Mathematics*, 71(5), 1121-1142.

Chun, Hyunbae, **Hur, Jung**, Son, Nyeong Seon, & Yoon, Haeyeon. (2019.9). Do Non-exporting Plants Benefit from Exporting Peer Plants?. *Asian Economic Journal*, 33(3), 221-234.

Jung, Jieun, and **Hur, Jung**. (2019.5). Overseas Subsidiaries and the Productivity of Two-way Trading Manufacturers in Global Value Chains. *Journal of Korea Trade*, 23(3), 1-19.

Hur, Jung, Yoon, Haeyeon, and **Ahn, Taehyun**. (2019.7). Occupational Composition Within Multinational Firms: Evidence From Korean Employer-Employee Matched Data. *Global Economic Review*, 48(2), 144-160.

Chongvilaivan, Aekapol, and **Hur, Jung**. (2019.11). Structural change and relative demand for skilled workers: new evidence

from the US manufacturing.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8(6), 1673-1696.

Hur, Jung. (2019.12). Services Global Value Chain in Korea. *Journal of Southeast Asian Economies*, 36(3), 424-445.

Iris, Doruk, Lee, Jungmin, and Alessandro Tavoni. (2019.9). Delegation and public pressure in a threshold public goods game.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74(3), 1331-1353.

Jung, Kuk Mo. (2019.9). Optimal negative interest rate under uncertainty. *International Journal of Central Banking*, 15(3), 1-25.

Kwark, Noh-Sun, and Hosung Lim. (2020.4). Have the free trade agreements reduced inflation rates?. *Economics Letters*, 109054.

Lee, Hahn Shik, and Lee, Woo Suk. (2019.9). Cross-regional connectedness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46, 101654.

Lee, Hahn Shik, and Lee, Woo Suk. (2019.9). International linkage among mena financial markets. *Economic Computation & Economic Cybernetics Studies & Research*, 53(3).

Lee, Young Hoon, Kim, Yongdai, and Kim, Sara. (2019.5). A bias-corrected estimator of competitive balance in sports leagues. *Journal of Sports Economics*, 20(4), 479-508.

Lee, Young Hoon, Kim, Yongdai, and Kim, Sara. (2019.9). Competitive balance with unbalanced schedules. *Journal of Quantitative Analysis in Sports*, 15(3), 239-260.

Fort, Rodney, **Lee, Young Hoon**, and Oh, Taeyeon. (2019.9). Quantile Insights on Market Structure and Worker Salaries: The Case of Major League Baseball. *Journal of Sports Economics*,

교수동정

20(8), 1066-1087.

Park, Bokyung, **Park, Jungsoo**, and Chae, Joon. (2019.3). Non-interest income and bank performance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pplied Economics Letters, 26(20), 1683-1688.

Kim, Kyungsoo, and **Song, E. Young**. (2019.12). Unbalanced Growth in a Small Economy with Open Capital Markets.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0(4), 42-68.



〈양현주 신입교수〉

미국 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양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개발경제, 한국 경제사이다.

보직교수 인사



〈곽노선 경제학부 학장/경제대학원 원장〉



〈김윤정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학과장〉



〈정국모 지암연구원 부원장〉

송의영 교수에 이어 2020년 1학기부터 곽노선 교수가 15대 경제학부 학장/경제대학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김윤정 교수가 신입 대학원 경제학과 학과장으로 임명되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아울러 정국모 교수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어 향후 이영훈 원장과 함께 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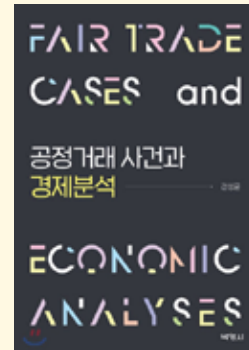
연구년 소식

이한식, 주하연 교수가 2020년 1학기부터 1년간의 연구년을 갖는다. 전현배 교수는 향후 6개월간의 연구학기를 갖는다. 한편, 박정수, 이운수 교수는 2019년 2학기부터 6개월간의 연구학기를 가졌으며 이번 학기부터 학부 강의를 재개하였다.

신임교수 임용

경제학부는 2020년 1학기 양현주 교수를 신입교수로 임용하였다. 양 교수는 2008년에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를 졸업하고, 2010년에 런던정경대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2016년에는

교수저서 신간: 『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



〈저자: 전성훈 교수〉

본교 전성훈 교수가 신간 저서 『공정거래 사건과 경제분석』을 출간하였다. 본 저서는 지난 15여년간 우리나라 경쟁정책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측면인 경제 분석 활성화의 결과로서, 저자가 지금까지 관여한 주요한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경제 분석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본서에서는 총 11개의 '주요한'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경제 분석을 다룬다. 즉 저자가 지난 15여년간 경제 분석에 참여한 공정거래 사건들 중에서, 기업결합으로는 2003년 무학-대선, 2006년 이랜드-까르푸, 2009년 옥션-G마켓,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는 2001년 포스코의 거래거절, 2008년 인텔의 조건부 리베이트, 2014년 네이버-다음의 수직적 거래제한, 2017년 쉘컴의 칩셋공급 및 라이선스 사업모델 관련사건, 그리고 공동행위로는 2002년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2000년 군납유류 입찰담합,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이 선정되었다. 선정 기준은 각 사건의 경제분석에 활용된 방법이 국내의 공정거래 경제 분석의 발전에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여부이다. 이렇게 선정된 11개의 사건들에 대해서 사건의 개요 및 경제 분석 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교수동정

● 『부동산경제학』 제3판



〈 저자: 김경환 교수 〉

본교 김경환 교수가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저술한 『부동산경제학』 제3판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저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부동산시장 분석과 정책평가, 부동산경제학의 교육 분야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경제학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정책 분석에 대한 이론의 적용과 실증 분석 문헌을 소개한다. 제3판에서는 제2판 출간 이후의 통계자료와 정책에 관한 설명을 업데이트하였으며,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본문 및 Box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다.

학계 동문 소식 (2019년 이후)

● 정한발 동문, Ohio State University Postdoctoral Researcher (2019.7~)

정한발 동문은 2019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동 대학교에서 Postdoctoral Researcher로 재직 중이다. 본교 석사학위 논문은 저명학술지인 Econometric Reviews에 게재되었으며 박사학위논문은 최근 Field Top 학술지인 Journal of Econometrics에 게재되었다. 이외에 본교 최인 교수 공저와 공저한 논문이 Journal of Applied Economics에 게재 확정을 받는 등 탁월한 연구력을 발휘하고 있다.

● 김성태 동문, 두산그룹 전략기획실 상무부임

김성태 동문은 2000년 본교 경제학과 졸업하고, 2002년 석사 학위(지도교수 이한식)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으로 취업하였다. 이후 2009년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당 연구원의 연구위원에 임용되었다. 경제동향전망 팀장, 거시경제연구부장을 거쳐, 지난 해 6월부터 KDI의 경제현황 평가와 전망을 총괄하는 경제전망실장을 맡아왔다. 2020년 4월부터는 두산그룹 전략기획실 상무로 부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거시재정, 계량경제, 경제거시동향 등이다.

● 장혜리 동문, 상지대학교 조교수 임용

장혜리 동문은 스포츠산업에 대한 실증연구로 본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졸업 후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원의 박사후과

정 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20년 1학기부터 상지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본교 이영훈 교수와의 공저로 Economic Inquiry, Applied Economics, Journal of Sports Economics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현재 경제학적 계량기법을 스포츠과학과 융합한 빅데이터 실증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황선호 동문,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용

황선호 동문은 정부 부채와 자본이동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본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다국가 패널데이터에 최신 계량경제학 기법을 응용하여 Economic Modelling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스포츠 산업의 경쟁구조를 분석한 연구로 Journal of Sports Economics에도 논문을 게재하였다. 졸업 후 본교 대우교수를 거쳐 서울대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지난 4월 국민연금연구원의 거시경제팀 부연구위원으로 임용되었다.

● 김천구 동문,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 임용

김천구 동문은 경제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 및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본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경제연구소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거시경제, 일자리, 재정 등에 관한 중장기 전략을 살펴보고, 특히 한국경제의 상황을 엄밀한 실증을 통해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 금융연구, 국제지역연구 등의 등재지에도 지속적으로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 한국경제의 금융정책과제 : 금융혁신과 포용금융



〈 2019 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금융정책과제 〉

2019년 12월 11일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과 서강경제포럼의 공동주관으로 '한국경제의 금융정책과제 : 금융혁신과 포용금융'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핀테크금융혁신과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한국의 금융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영훈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남주하 교수의 '핀테크금융혁신과 금융산업발전', '서민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포용금융혁신' 두 가지 주제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곽노선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김규수 한국은행 결제연구팀장,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 허석균 중앙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 경제학부 정기세미나

2019년 2학기에 국내외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최근 경제학의 연구동향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제학부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요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Timothy DeStefano (9월 5일)

OECD

Cloud Computing and Firm Growth

정국모 (9월 19일)

서강대학교

A Long-Run Approach to Money, Unemployment, and Equity Prices

Stephen Williamson (10월 2일)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Welfare and Policy Implications

Timothy Kam (10월 8일)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Money, Credit and Imperfectly Competitive Banking

최한수 (10월 10일)

경북대학교

기본소득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Johannes Hagen (10월 23일)

Jönköping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Effects of information interventions on pension choices in Sweden

Theresa Greaney (11월 4일)

University of Hawaii

Global Influences on Gender Inequality: Evidence from Female Employment in Korea

최우진 (11월 12일)

KDI

Catching up by Deglobalization: Capital Account Policy and Economic Growth

Tomoo Kikuchi (11월 19일)

고려대학교

Capital bubbles, Interest rates and Investment in a Small Open Economy

한바란 (11월 26일)

KDI School

Partisanship Dynamics of Government and Nonprofits - Theory and Evidence from the U.S.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소식

Ching-Jen Sun (12월 3일)

Deakin University

Designing Practical and Fair Sequential Team Contests

편주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Does Debt Market Integration Amplify the 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Business Cycles During Financial Crises?

박동현 (12월 12일)

ADB

Debt buildup and financial vulnerability: evidence from global markets

● **특별 강연(Special Lecture)**

이번 겨울방학에 Capital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의 Li Su 교수를 초청하여 Uncovered Equity Parity(UEP)에 대해 copula method를 사용하여 알게 된 새로운 연구결과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였다.

Su, Li, Capital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 (1월 21일)

“Uncovered Equity Parity: New Evidence from a Copula Approach”

● **남덕우경제연구원 학술지 『시장경제연구』 제 48집 3호, 제 49집 1호 발간**

남덕우경제연구원은 정기발행 학술지인 『시장경제연구』 제 48집 3호를 2019년 10월에, 제 49집 1호를 2020년 2월에 발간하였다. 이번 학술지에는 다음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시장경제연구』 제 48집 3호

1. 보수체계의 유인효과와 선택효과
- 이인재(인천대학교)

2. Does Big Data Matter?:

Predicting Stock Returns using Online Stock Message Boards

- 김재훈(서강대학교), 박석진(서강대학교), 정재식(서강대학교)

3. 자산수익률 간 연관성 분석

- 신종협(부산대학교)

4. 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역할을 중심으로
- 배한형(서강대학교), 전현배(서강대학교), 신동한(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 제 49집 1호

1. Is there regional inequality in the medical accessibility of the severely injured? Application of driving time data in South Korea

- 양현주(인천대학교), Elliot Kang(University of Michigan), 김민경(홍익대학교), 고강혁(고려대학교)

2. 국가 간 경기 동조성과 국내 주식에 대한 편향

- 편주현(고려대학교)

3. Asset Redeployability and the q-theory of Investment

- 김용준(서울시립대학교)

4. 부드러운 국면전환 오차수정모형(ST-ECM)을 이용한

- 우리나라 취업자 수와 GDP의 비선형 관계 분석
- 송병호(고려대학교)

5.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책방향

- 유한욱(한림대학교)

경제학부 단신

2019학년도 2학기 Honors Program 선발 및 졸업

- 가. 목적 :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이론경제학 분야와 재무경제학 분야의 심화 과정의 교육을 통해 서강 경제 교육 수월성 제고
- 나. 선정 기준
- 4학기 ~ 6학기
 - CGPA 3.3 이상
 -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의 Honors class 분반 한 과목 이상 이수자
- 다. 선정 결과 :
- 금학기: 이론경제학 2명, 재무경제학 7명
- 라. 2020년 2월 졸업
- 이론경제학 : 정임령, 엄시진, 김한결
 - 누계 인원 : 이론경제학 18명, 재무경제학 11명

경제학부 성적 우수학생 Dean's List 시상식

- 가. 개최일 : 2020년 5월 예정
- 나. 장소 : GN511호
- 다. 행사 내용
- 2019년 2학기 성적 우수자 33명 선발 (학부별 상위1% 성적우수자 경제학전공 7명 포함)
 - 성적우수자 시상 및 교수와의 대화

Global EnH 최고위과정 수료식

- 가. 개최일 : 2020. 5. 15(금)
- 나. 장소 : GN101

Global EnH 최고위과정 입학식

- 가. 개최일 : 2020. 5. 8(금)
- 나. 장소 : GN101

경제대학원 소식

경제대학원 제54기 학위수여식 개최

- 가. 졸업일: 2020년 2월
- 나. 학위수여자: 총 40명
(경제이론전공 4명, 공공경제전공 5명, 국제경제전공 5명, 금융경제전공 4명, 부동산경제전공 18명, 정보기술경제전공 4명)

전공	인원
경제이론	4
공공경제	5
국제경제	5
금융경제	4
부동산경제	18
정보·기술경제전공	4
합계	40

2020학년도 전기(59기) 신입생 지원 및 등록 현황

- 가. 지원자 수 79명 / 합격자 수 63명
- 나. 최종등록인원 47명

60회 신입생 입학식&오리엔테이션

- 가. 일시: 2020년 8월 말 예정
- 나. 장소: 미정
- 다. 참석대상: 경제대학원 교수진, 행정팀, 신입생 및 재학생

2020학년도 후기 학생모집

가. 모집과정 및 인원

모집과정	전공분야	모집인원
「경제학석사」 학위과정	*5학기: 일반경제학 - 공공의회경제, 국제경제, 금융경제, 노동경제 *4학기: 부동산경제전공 *4학기: 인공지능경제전공	00명

- 나. 지원자격 :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2020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 다.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
- 라. 전형일정

구분	일반 1차 전형 (위탁전형과정 포함)	일반 2차 전형 (편입학과정 포함)
원서접수	2020.05.07.(목) ~ 2020.05.14.(목)	2020.06.08.(월) ~ 2020.06.17.(수)
서류제출	2020.05.15. (금) 17:00 까지	2020.06.19.(금) 17:00 까지
전형일시	2020.05.22. (금) 18:30 부터	2020.06.26 (금) 18:30 부터
합격자발표	2020.05.29. (금) 15:00 예정	2020.07.01. (수) 15:00 예정

※ 자세한 사항은 경제대학원 홈페이지(gsecono.sogang.ac.kr)를 통하여 공지 예정이며, 입학관련 사항은 경제대학원 행정팀(02-705-8179)으로 문의.

Opinion Leaders Program 소식

OLP 과정 소개

OLP과정은 서강대 경제대학원이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 개발한 국내 최고의 경제 경영 과정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언론인, 공/사기업체의 임원 및 간부, 고위 공무원, 법관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이 아닌 현실 이슈를 주제로 하되 원리의 이해 및 적용을 중요시하는 강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0 경제대학원 OLP 제23기 과정 안내

지난 3월 개강이 예정되어 있던 OLP 과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다음달 5월 초에 개강한다. 이번에 개강하는 OLP 23기 과정은 2020년 5월 7일 입학식을 가지고 매주 목요일에 경제/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최고 강사들을 초청하여 정규 강의를

실시한다. OLP 23기의 주요 일정으로 6월과 7월 두 차례의 부부 동반 특강이 있으며, 8월 20일 OLP 과정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상황이 어려워 개강이 늦어졌지만 이전 과정보다 정규강의를 더 확대해 보다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한 학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대학원 OLP, 대학 최고위과정 평가 6위

모교 경제대학원이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AMP)인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OLP · Opinion Leaders Program)이 '2020 대학 최고위과정 평가'에서 6위를 기록하였다. 모교 OLP는 17개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지난해 대비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7위에서 6위)하였다.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소식

총동문회 신년하례식 개교 60주년 맞아 부활



〈 2020 총동문회 신년하례식 〉

2020년 총동문회 신년하례식이 1월 6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2014년 이후부터 개최하지 않았던 신년 행사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부활한 자리였다. 총동문회가 준비한 모처럼의 대형 행사에는 동문과 학교 관계자 등 23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오종윤(87 경영) 동문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광호(72 경영) 총동문회장 그리고 박종구 총장의 축사 및 서강인상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경로(76 경영) 선정위원장은 선정 경위와 함께 차하순 명예교수, 고영수(주) 청림출판 대표이사 회장, 김태주(주)플랜티벳 대표이사에게 만장일치로 제23회 자랑스러운 서강인상의 수여를 발표하였다.

동문동정

-서병수(71 경제)

서병수 동문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갑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었다. 서동문은 지난2000년 해운대구청장, 16대, 17대, 18대, 19대 해운대기장군갑 지역구 국회의원, 2014년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했다.

-김영주(경제대학원 15기)

김영주 동문이 서울시 영등포구갑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었다. 김동문은 전국금융노련 상임부위원장, 노무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17, 19, 20대 국회의원, 통합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다.

-조광현(88 경제)

조광현 동문이 2020년 4월 1일자로 서강대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조 동문은 서강타임스 · 학보 동인회장을 역임했고, 서강옛집 편집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

발전기금 / 동문회 후원금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 경제학부의 발전기금에 약정하시고 납입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경제학과의 발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이후 '웅산-경제대학원 초빙교수 기금'으로 3,000만원(마리오쇼핑 주식회사)과 '남덕우 기념사업회 기금'으로 2,000만원(케이비증권 주식회사)이 기탁되었습니다. '경제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미도교역(주))이 기탁되었으며, '경제학부 장학기금'으로 500만원(김환균), '회성 기금'으로 500만원(김환균)이 기탁되었습니다. 그 외 기탁해 주신 서강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경제학부, 경제대학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기부자 명단

(2019.09.01.~2019.02.29.)

학부	김종호, 김환균, 문용호, 이철순, 정하경
대학원	경제대학원 54기 원우일동, 마리오쇼핑 주식회사, 이태현
교수	김도영, 김종화, 박정수, 송의영, 전현배, 허정
서강의 벗	김준석, 미도교역(주),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

경제학부 발전기금을 보내주실 분께서는 경제학부 행정팀(02-705-8179) 또는 서강대학교 발전홍보팀(기금담당자, 02-705-8050)으로 연락 주시고, 경제학부 발전기금의 용도임을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GANG ECONOMICS